부자동네 대리운전
대리운전 · 일일기사 · 차량탁송
전국어디서나 늘 고객님 곁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1644-4099 대리운전 보험 가입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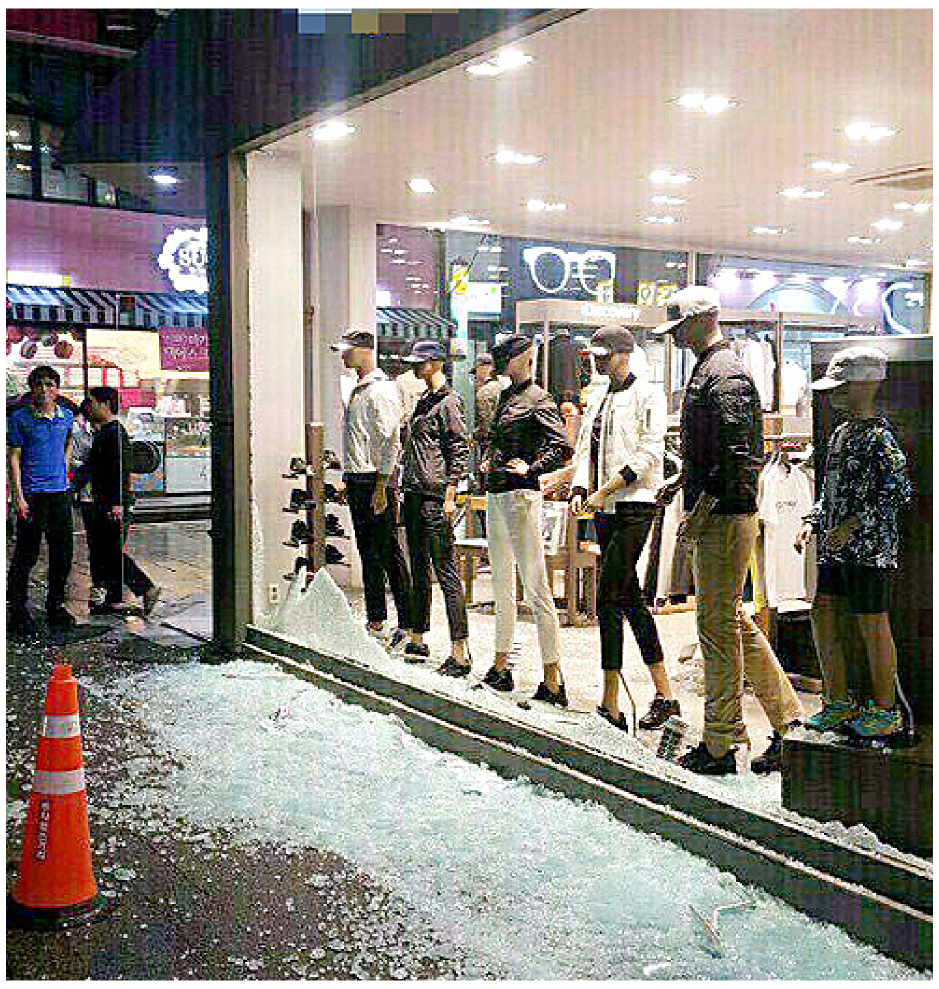
부자동네타임즈

태영 **롯데** 공인중개사
등록번호 : 92420000-2340
아파트 / 주택
상가
매매, 전·월세
상담
대표/공인중개사 심 귀 영
TEL : 02)838-3388 FAX :02)867-9100
Mobile : 010-6371-5520
서울시 구로구 새말로93 신도림 태영아파트 상가 106호

〈일간〉
www.bujadongne.com
2016년 9월14일수요일

정부, 지진원인 조사단 파견 · 종합대책 조기 마련

민간전문가 7명 포함 재해원인조사단 파견2020년까지 계측소 추가 구축에 300억 소요 전망



경상북도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에 대해 정부는 13일 지진원인 조사단을 파견하고 지진 종합대책 조기 수립에 나섰다.

정부는 이날 국민안전처에 설치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관련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승우 대책본부 대변인은 이날 합동브리핑에서 "현장상황과 응급조치 진행사항 파악 및 지진발생 원인 파악을 위해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현장상황관리관과 지진재해원인 조사단을 현장에 파견했다" 고 밝혔다.

이어 "지진대응체계 전반에 대한 면밀한 분석 후 지난 5월 발표한 '범정부 지진방재개선대책'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조기에 마련해서 적극 추진하겠다" 고 밝혔다.

대책본부는 지진 당시 재난문자가 제대로 발송되지 않은 원인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통신사의 기지망이 폭주하는 관계로 일부 상황이 발생했다" 고 설명했다.

또 "서울 지역은 진도분석 과정에서 진도 4 규모 이상에 해당되는 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발송되지 못했다" 고 덧붙였다.

한편 대책본부는 지진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에는 오는 2020년까지 지진 계측기를 추가로 설치하는데 300억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재관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는 현재 계측기가 200여개정도 설치돼있고, 지진예보를 3분 이내로 하기까지는 2020년까지 314개까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계측소 한 곳당 약 3억원정도가 들어간다. 약 4~5년 동안 관측망을 구축하는데 300억원 정도가 필요한 상황" 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심재현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을 단장으로 국민안전처 3명, 재난안전연구원 4명, 민간 전문가 7명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8시30분 기준, 지진으로 경상자 8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재산피해는 △건물균열 106건 △수도배관 파열 16건 △지붕파손 66건 △간판안전조치 등 60건 △낙석 5건 등 총 253건이다.

앞서 정부는 전날(12일) 오후 10시15분부터 경주 지진에 따른 대응조치 강화를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단계를 2단계로 격상했다.

이영진 기자

박 대통령 "핵미사일 한발이라도 발사하면 北정권 끝장"

제41회 국무회의 주재…" 사드 반대만 하는 것은
북한 도발에 우리 생명 노출시키는 결과"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북한이 우리 영토를 향해 핵을 탑재한 미사일을 한 발이라도 발사하면 그 순간 북한 정권을 끝장내겠다는 각오로 고도의 응징태세를 유지하기 바란다" 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1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북한의 핵위협이 긴박하게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도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이전보다 더욱 실효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 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감행한 만큼 각국 정상들도 북한 핵 위협이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협임을 인식하고 국제사회가 더욱 강력한 새로운 제재 방안을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 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사드 반대를 주장하는 야권을 향해 "사드 배치에 반대만 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전혀 고려치 않고, 무방비 상태로 북한 도발에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노출시키는 결과만 가져올 따름" 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와 함께 우리 군이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북한 핵 · 미사일 위협 대응책도 더욱 신속하게 추진하라" 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금 북한이 연일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사드 배치를 백지화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는 무엇으로 지킬 수 있을지 의문" 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저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국가와 국민들을 지킬 수 있는 모든 것을 철저히 해나갈 것" 이라면서 "현재 상황의 엄중함을 국민들께서 보다 깊이 인식하고, 안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데 모든 힘을 결집할 수 있도록 내각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달라" 고 당부했다.

박준수 기자

박 대통령, 한진해운 성토 "도덕적 해이가 큰 피해 가져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한진해운을 직접 언급하면서 "한 기업의 무책임함과 도덕적 해이가 경제 전반에 얼마나 큰 피해를 가져오는지 모두가 직시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1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해운이 마비되면 정부가 어쩔 수 없이 도와줄 수밖에 없다는 안일한 생각이 이번에 국내 수출입기업들에 큰 손실을 줬다" 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한진해운의 경우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이 매우 미흡했다" 고 지적한 뒤 "정부는 기업이 회생 절차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정부가 모든 것을 해결해줄 것이라는 식의 기업 운영방식은 결코 묵인하지 않을 것" 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박 대통령은 "한진해운 직원들과 항만 업무 종사자들, 그리고 바다 한가운데서 이런 상황을 맞닥뜨린 선원 분들의 어려움을 생각하면 마음이 매우 무겁다" 고 토로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그러나 이렇게 구조조정의 고통이 크다고 해서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산업구조 개편을 미루거나 포기한다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게 될 것" 이라는 점도 명확히 밝혔다. 또한 박 대통령은 "구조조정은 우리 경제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피할 수 없는 과정인 만큼 기업과 국민 모두의 동참이 반드시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구조조정 업종의 협력 업체와 지역경제에 온기가 돌 수 있도록 9월2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 예산의 집행 ·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특히 구조조정 지원과 일자리 창출, 민생안정 분야에 최대한 빨리 자금이 집행되도록 하라" 고 지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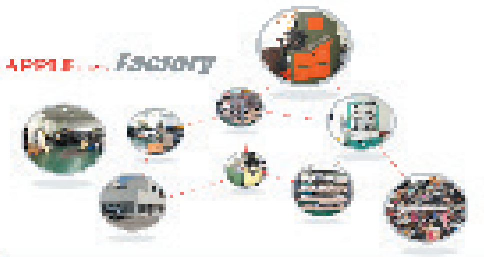
박준수 기자

기사 제보 및 광고 문의

기사제보: 1899-8218
광고문의: 02) 717-7272

we will hard Create a very meaningful
luxury shoes and handbag for Consumer.

APPLE LIZ'S
www.appleliz.com
Luxury Handmade Shoes & Handbag



애플리즈 브랜드만의 제품 경쟁력 (감각적인 디자인과 자체공정 시스템)

주식회사 애플리즈에서 함께 성장해 나갈 가족을 모십니다.
대리점 문의전화 대표전화 1899-7754